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FFS)에 기초하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Functioning Scale
 - On the basis of FFS developed by Tavitian et al.-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崔僖珍
 교 수 劉永珠

Dept. of Child, Family, &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Hee Jin, Choi
 Prof. : Young Ju, Yoo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wholistic Family Functioning Scale for Korean family based on FFS of Tavitian et al. The data for this study was got from the sample survey of 370 mothers who had children of educational period living in Seoul and Kyunggi-do.

The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Through item discrimination method, 34 items of the total items showed a high index, ranged from .29 to .77 of discrimination coefficient. 2)Factor analytic procedures selected 29 items among 34 items and extracted 4 factors(Positive Family Emotion, Family Communication, Participation in Family Event, and Sharing Family Worries). These factors accounted for 93.03% of the total variance. 3)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reduce the number of items yielded 26 items for the Family Functioning Scale. 4)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or this scale showed high internal consistency(Cronbach's $\alpha = .86$).

I. 서론

1. 문제 제기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가족의 역할·권력구조나 기능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가족 내에서 가족원들의 심리·사회적 상호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혼율이 증가되고(1996년 현재 1.8%) 정서적 이혼 상태의 가족과 문제를 가진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7). 더욱이 최근에는 가족원 간의 패륜적인 사건들이 급증하고, 부모-자녀간, 부부간의 다툼이 상대방의 자아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까지 크게 확대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소년 비행 및 가출의 증가 등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 상호작용의 역기능성이 극명해진 결과라 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능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가족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하는 문제는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은 물론 전체 사회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에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분야에서 역기능적인 가족을 진단하고 그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역동성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Beavers & Voeller, 1983;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척도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FACES 등의 몇몇 척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여러 가지 척도들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에게 적합한 가족기능도 척도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척도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포괄적인 차원에서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 치료 영역에서 포괄적인 가족기능도 측정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전체론적인 가족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Doherty & Colangelo, 1984; Grunebaum & Chasin, 1982; Pinsoff, 1983), 가족기능도 척도에 대해서도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체계로서의 전체성을 보는 시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 등(1987)은 가족기능성 및 치료에 관한 기존의 모든 이론과 임상 결과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정 차원에서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가족기능도 척도(FFS)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vitian 등이 개발한 FFS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전반적인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진단수준의 도구로서 포괄적이며 신뢰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가족기능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가족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물론 가족상담 및 교육 분야에서 가족들의 전체적인 기능도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가족기능도척도(FFS)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항들의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족기능도척도(FFS)는 어떠한 요인구조로 되어 있는가?
- 〈연구문제 3〉 요인분석을 거쳐 추출된 문항들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FFS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가족기능도척도는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는 척도인가?
- 〈연구문제 5〉 재구성된 가족기능도척도(FFS)를 표준자료로 이용한 가족기능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기능적 가족의 개념

Stinnett 등(1977)은 가족원 모두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하였고, Fisher와 Sprenkle(1978)은 가족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는 가족이 기능적 가족이라고 하였다. 또, Casas(1984)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함께 즐기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고, Hennon(1985)은 기능적인 가족은 활력이 있고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부부 관계의 성장을 고무하는 가족이라고 하였다(어은주, 1996). Bloom(1985)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 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elkin과 Nass(1984)도 제대로 기능하는 가족이란 가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은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성과 두드러진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변인들이 혼합되어 서로 관계를 맺는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고 있으며(Lewis, Beavers, Gossett 및 Phillips, 1976), 기능적인 가족의 특징과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징은 구분하기 힘들만큼 서로 섞여있다(Beavers, 1977).

국내의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가족’이란 용어 대신 ‘건강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유영주(1994)는 가족의 요인을 개인 차원, 가족관계 차원, 가족체계 유지 및 향상 차원으로 대별하고, 건강가족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이라 정의하였고, 서병숙(1994)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별로 가족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는 가족이라 하였으며, 옥선화(1995)는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이라 하였다. 또한, 어은주(1996)는 가족원 상호

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가치)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의 이러한 정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가족을 가족원 개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가족으로, 적절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어떠한 문제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족으로 본다.

2. 가족기능도 척도 관련 연구

가족기능도 척도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1970년대) 이루어져 왔고(표 1), 최근에는 가족기능도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족기능도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려는 연구(Bloom, 1985)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척도들에 대한 타당화 및 실용성 여부에 관한 연구(Sigafoos & Reiss, 1985)도 많다. 국내에서도 최근 가족기능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건강성’ 척도(어은주·유영주, 1995)가 개발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가족기능도 척도의 개발 및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척도들의 국내 적용 여부에 관한 타당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기능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김윤희, 1989; 김영민, 1992; 전귀연, 1993; 최연실, 1993; 김연지, 1994; 김주연, 1997; 이문행, 1993)이 FACES II·III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고, 가족기능도 척도는 김은영(1990)이 사용한 FFFS정도 뿐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척도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3. 가족기능도척도(FFS)의 개관 및 개발 절차

Tavitian 등은 80년대부터 미국의 가족연구는 포괄성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체적인 관점의 가족모델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정 이론의

〈표 1〉 가족기능도 관련 척도

| 척도명 | 제작자(제작년도) |
|--|--|
| 1. Family Functioning Index | Pless & Satterwhite(1973) |
| 2. Family Evaluation Scale | Lewis, Beavers, Gosset & Phillips (1976) |
| 3. Family Strength Inventory | Stinnett & Sauer(1977) |
| 4. Family Life Questionnaire | Guernsey(1977) |
| 5. Family APGAR Index | Smilkstein(1978) |
| 6. Family Environment Scale | Moos & Moos(1981) |
| 7. Feetham Family Functioning Survey | Feetham(1982) |
| 8. Family Assessment Measure | Skinner, et al.(1983) |
| 9.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 Epstein, Baldwin & Bishop(1983) |
| 10. Family Concept Test | Van Der Veen(1984) |
| 11. Family Responsibility Index | Bjorkquist(1984) |
| 1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 Olson, Porter & Lavee(1985) |
| 13. Family-Of-Origin | Hovestadt, et al.(1985) |
| 14. Family Strength Scale | Olson, Larsen & McCubbin (1985) |
| 15.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ce Questionnaire | Roelofse & Middleton(1985) |
| 16. Self-Report Family Instrument | Beavers, Hampson & Hulgus(1985) |
| 17. Family Functioning Scale | Bloom(1985) |
| 18.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 Schumm, Jurich, & Bollman(1986) |
| 19. Family Health Scale | Kinston, Loader & Miller(1987) |
| 20. Family Functioning Scale | Tavittian, Green, Lubiner, Grebstein & Velicer(1987) |
| 21. Family Awareness Scale | Kolevzon & Green(1987) |
| 22.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 McCubbin & Coe(1987) |
| 23. Family Hardiness Scale | McCubbin & Thompson(1987) |
| 25.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Scales | Antonovsky and Sourani(1988) |
| 26. Family Assessment Scale | Fristad(1988) |
| 27. Family Well-Being Assessment | Caldwell(1988) |
| 28. Family System Functioning | Doane, Hill, Kaslow & Quilan(1988) |
| 29. Georgia Family Q-sort | Wampler & Halverson(1989) |
| 30.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 | McCubbin, Olson, Larsen(1991) |
| 31. Index of Family Relations | Hudson(1992) |
| 32. 가족 건강성 척도 | 어은주·유영주(1995) |

* 출처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148.

Fisher, J., Corcoran, K.(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NewYork :The Free Press.

* 이상의 가족기능 관련 척도는 가족환경, 가족건강, 가족관계, 가족평가, 가족복지, 가족적응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 중 가족기능도 척도로 된 것은 1, 15, 20, 28번이며, 본 연구는 20번 Tavittian 등의 척도에 기초하고 있다.

들 안에서 가족기능도 척도를 구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족기능성 영역 안에서 비슷한 여러 요인을 종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들은 가족에 관련된 기존의 여러 척도들이 도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특정 차원으로 가족기능성을 보

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족기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Tavitian 등의 이러한 연구목적과 본 연구자의 연구 의도가 일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가족에게 적합한 전체론적 관점의 가족기능도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Tavitian 등의 FFS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 이론, 전문가와의 면접 등을 통하여 210개의 문항을 선택하고, 다시 심리학 교수,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 대학부설 기관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197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세~62세까지의 백인, 독신자, 여성, 천주교 신자 등 총 563명으로 구성된 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197개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를 구하여 요인분석을 거쳐 요인구조를 알아보고 문항수를 축소한 뒤 내적일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4번, 21번, 38번 문항은 거꾸로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에 합하도록 되어 있다.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구조로 된 40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은 「긍정적인 가족 정서(positive family affect)」, 「가족 의사소통(family communication)」, 「가족 갈등(family conflicts)」, 「가족 근심(family worries)」, 「가족 의례/지원(family rituals/supports)」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나 Tavitian 등은 총점이 사용될 수 있음을 당부하고 있다. 척도 전체의 신뢰도계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은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가 .90~.74까지로 적절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FFS의 신뢰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FS와 Olson등이 개발한 FACES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하여, FFS의 공인타당도가 높음을 입증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교육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었다. 1997년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질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한 뒤, 1997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98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기타 기관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부실기재를 제외한 370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방법

가족기능도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응답 총점분포의 상하위 27%에 속한 집단을 나누어 χ^2 값과 Cramer's V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변별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의 목적으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각회전을 사용하여 적합한 하위구조를 알아보았다. 추출된 문항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이 추가됨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량이 적은 문항들을 제외함으로써 좀 더 유용한 문항들로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추출된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가족기능도 척도를 표준 자료로 사용하여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결혼만족도¹⁾ 및 자아존중감²⁾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F검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Schumm 등(1980)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했음.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2) Rosenberg(1972)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했음.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표 2〉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백분율) | 변인 | 구분 | 빈도(백분율) |
|-----------|-------------|------------|------------------|-------------|------------|
| 부인의 연령 | 20대 | 6(1.9) | 남편의 연령 | 20대 | 3(1.0) |
| | 30대 | 81(25.4) | | 30대 | 25(7.9) |
| | 40대 | 204(63.9) | | 40대 | 222(70.5) |
| | 50대 | 26(8.2) | | 50대 | 62(19.7) |
| | 60대 | 2(0.6) | | 60대 | 3(1.0) |
| | 계 | 319(100.0) | | 계 | 315(100.1) |
| 부인의 학력 | 중졸이하 | 93(25.8) | 남편의 학력 | 중졸이하 | 62(17.5) |
| | 고졸 | 197(54.6) | | 고졸 | 159(44.8) |
| | 초대졸 이상 | 71(19.7) | | 초대졸 이상 | 134(37.7) |
| | 계 | 361(100.1) | | 계 | 355(100.0) |
| 부인의 직업 | 무직 | 218(59.9) | 남편의 직업 | 노무직 | 197(57.8) |
| | 노무직 | 107(29.4) | | 사무직 | 118(34.6) |
| | 사무직 | 21(5.8) | | 전문직 | 24(7.0) |
| | 전문직 | 18(4.9) | | 최고관리직 | 2(0.6) |
| | 계 | 364(100.0) | | 계 | 341(100.0) |
| 부인의 소득 | 없음 | 213(59.5) | 남편의 소득 | 110 미만 | 54(15.6) |
| | 110만원 미만 | 32(8.9) | | 110이상~170미만 | 92(26.6) |
| | 110이상~170미만 | 44(12.3) | | 170이상~230미만 | 93(26.9) |
| | 170이상~230미만 | 54(15.1) | | 230이상~280미만 | 47(13.6) |
| | 230이상~280미만 | 10(2.8) | | 280이상 | 60(17.3) |
| | 280이상 | 5(1.4) | | 계 | 346(100.0) |
| 계 | 358(100.0) | | | | |
| 만자녀 연령 | 만13세 미만 | 24(6.6) | 종교 유무 | 부부모두 有 | 187(51.9) |
| | 만13세~만15세 | 117(32.2) | | 한쪽만 有 | 67(18.6) |
| | 만16세~만18세 | 128(35.3) | | 부부모두 無 | 106(29.4) |
| | 만19세 이상 | 94(25.9) | | 계 | 360(99.9) |
| | 계 | 363(100.0) | | | |
| 가족 형태 | 핵가족 | 293(79.2) | 가족의 주관적 계층 | 上 | 14(3.9) |
| | 확대가족 | 77(20.8) | | 中上 | 154(43.0) |
| | 계 | 370(100.0) | | 中下 | 151(42.2) |
| | 편부모가족 | 25(6.8) | | 下 | 39(10.9) |
| | 일반가족 | 344(93.2) | | 계 | 358(100.0) |
| | 계 | 369(100.0) | | | |

* 남편과 부인의 직업은 행상, 서비스직, 일반판매직, 자영업 등은 노무직으로, 일반사무직, 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은 사무직으로, 교사, 약사, 간호사, 종교인 등의 기술직과 과학자,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은 전문직으로, 대기업주, 자본가, 최고위 관리직(차관급 이상)은 최고 관리직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문항양호도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하여 우선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문항들의 평균치가 2점을 넘고 있으므로 42문항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고, 응답 총점 분포의 상하위 27% 집단에 대한 χ^2 검증과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여 문항변별도를 알아보았다. 각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χ^2 검증과 Cramer's V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Ahmann과 Glock(1967)에 의하면 변별지수가 .20 이상이면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서 총 42문항 중 변별지수가 .20 이상인 양호한 문항은 34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의 목적으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0 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으며, Scree 검사 결과에서도 4개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너무 적거나(.40미만) 여러 요인에 대하여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여 한 요인에 분명하게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5개 문항(41, 27, 15, 18, 1번)을 제외한 뒤 나머지 29개 문항에 대하여 사각회전을 다시 실시하였다(<표 4>).

사각회전 결과 추출된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93.03%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

<표 3> 문항양호도

| 문항 번호 | 평균 | 표준 편차 | χ^2 | Cramer's V | 문항 번호 | 평균 | 표준 편차 | χ^2 | Cramer's V |
|-------|------|-------|-----------|------------|-------|------|-------|----------|------------|
| 1 | 5.45 | 1.62 | 57.88*** | 0.54 | *22 | 3.51 | 1.74 | 5.50 | 0.17 |
| *2 | 3.25 | 1.52 | 10.61 | 0.23 | *23 | 2.96 | 1.83 | 14.90* | 0.27 |
| 3 | 5.35 | 1.51 | 59.14*** | 0.55 | 24 | 3.43 | 1.68 | 59.70*** | 0.55 |
| 4 | 5.19 | 1.54 | 24.27*** | 0.35 | 25 | 3.95 | 1.58 | 47.06*** | 0.49 |
| 5 | 4.35 | 1.81 | 55.29*** | 0.53 | *26 | 3.23 | 1.66 | 11.28** | 0.24 |
| *6 | 2.48 | 1.46 | 15.97* | 0.29 | 27 | 4.46 | 1.75 | 89.87*** | 0.68 |
| 7 | 5.50 | 1.46 | 61.12*** | 0.56 | 28 | 4.45 | 1.64 | 69.74*** | 0.59 |
| 8 | 5.28 | 1.61 | 42.02*** | 0.46 | 29 | 4.98 | 1.91 | 54.98*** | 0.53 |
| 9 | 5.60 | 1.36 | 49.37*** | 0.50 | 30 | 3.98 | 1.74 | 73.96*** | 0.61 |
| 10 | 4.31 | 1.73 | 35.46*** | 0.43 | *31 | 3.52 | 1.75 | 20.57** | 0.32 |
| 11 | 5.12 | 1.55 | 62.27*** | 0.56 | 32 | 3.70 | 1.68 | 76.98*** | 0.63 |
| 12 | 3.91 | 1.76 | 47.10*** | 0.49 | 33 | 5.39 | 1.49 | 77.96*** | 0.63 |
| 13 | 3.90 | 1.85 | 37.05*** | 0.44 | 34 | 4.09 | 1.63 | 37.00*** | 0.43 |
| 14 | 5.60 | 1.53 | 84.42*** | 0.65 | 35 | 4.29 | 1.66 | 78.96*** | 0.63 |
| *15 | 2.25 | 1.39 | 8.97 | 0.21 | 36 | 2.43 | 1.48 | 45.83*** | 0.48 |
| 16 | 4.52 | 1.75 | 117.10*** | 0.77 | 37 | 5.63 | 1.38 | 92.46*** | 0.69 |
| 17 | 3.98 | 1.86 | 83.07*** | 0.65 | 38 | 6.15 | 1.33 | 64.41*** | 0.57 |
| 18 | 4.62 | 1.66 | 37.42*** | 0.45 | 39 | 5.38 | 1.60 | 39.29*** | 0.45 |
| 19 | 4.50 | 1.76 | 70.23*** | 0.60 | 40 | 5.12 | 1.73 | 33.82*** | 0.41 |
| *20 | 3.50 | 1.31 | 6.19 | 0.18 | 41 | 5.00 | 1.57 | 97.54*** | 0.70 |
| 21 | 6.23 | 1.21 | 17.02*** | 0.29 | 42 | 5.12 | 1.64 | 54.70*** | 0.48 |

***P < .001 **P < .01 *P < .05

* 표시된 문항은 χ^2 값이 유의하지 않거나 Cramer's V계수가 .20 이하인 문항임.

〈표 4〉 29개 문항에 대한 사각회전 결과

| 문 항 | 사각회전(Promax) | | | | |
|-------------------------------------|--------------|-------|-------|-------|----------------|
| | 요인1 | 요인2 | 요인3 | 요인4 | h ² |
| 33.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 | .78 | .44 | .54 | .14 | .65 |
| 9. 내가 얘기할 때 가족들이 경청함. | .71 | .33 | .33 | .10 | .52 |
| 11. 가족들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낌. | .70 | .33 | .35 | .15 | .50 |
| 37. 가족원의 기분을 알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함. | .52 | .45 | .40 | .24 | .36 |
| 3. 가족원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가족에게 알려야 함. | .49 | .35 | .32 | .18 | .28 |
| 7. 우리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함. | .48 | .25 | .24 | .12 | .24 |
| 4.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치 않음. | -.43 | -.12 | -.26 | .02 | .20 |
| 36. 가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 | -.51 | -.32 | -.40 | .02 | .30 |
| 21. 우리가족은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봄. | -.55 | -.05 | -.30 | .03 | .34 |
| 38. 나는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소외감을 느낌. | -.71 | -.25 | -.42 | -.06 | .51 |
| 19. 나는 화가 났을 때 가족들에게 솔직히 표현함. | .26 | .71 | .16 | .14 | .52 |
| 35. 내가 걱정될 때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림. | .28 | .68 | .30 | .28 | .48 |
| 16. 대인관계에 대하여 걱정이 있으면 가족과 얘기함. | .42 | .66 | .37 | .19 | .47 |
| 17. 내가 슬플 때 가족들이 알도록 이야기 함. | .20 | .65 | .19 | .14 | .43 |
| 28.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나면 그것을 가족에게 얘기함. | .24 | .58 | .24 | .17 | .34 |
| 24. 우리가족은 성(性)문제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함. | .24 | .47 | .28 | .06 | .24 |
| 40. 가족들은 자신의 문제를 나와 의논함. | .38 | .07 | .60 | .08 | .40 |
| 32. 우리가족은 가족의 역사에 관심이 있음. | .30 | .30 | .60 | .27 | .39 |
| 30. 가족의 친목도모는 우리가족에게 중요함. | .35 | .38 | .59 | .12 | .38 |
| 39. 우리가족은 친척이나 친구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냄. | .40 | .14 | .56 | .05 | .34 |
| 14. 우리가족은 기념일과 특별한 일들을 축하함. | .46 | .34 | .52 | .18 | .33 |
| 29. 우리가족은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함께 식사함. | .27 | .31 | .50 | .03 | .28 |
| 5. 우리가족은 휴일을 함께 보냄. | .38 | .31 | .50 | -.01 | .30 |
| 12. 우리가족은 전통을 고수함. | .18 | .16 | .48 | .24 | .27 |
| 42. 우리가족은 친정 식구들과 친하게 지냄. | .35 | .23 | .47 | -.04 | .25 |
| 10. 식구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고민이 됨. | .02 | .18 | .07 | .64 | .42 |
| 13. 가족안에서 일이 잘 안되면 몸이 아파지는 것 같음. | -.06 | .14 | .03 | .60 | .37 |
| 34. 가족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식욕이 떨어짐. | .16 | .12 | .18 | .49 | .26 |
| 8. 가족 중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걱정이 됨. | .25 | .17 | .16 | .49 | .28 |
| 고유치 | 5.30 | 4.10 | 4.44 | 1.79 | |
| 누가변량(%) | 56.90 | 72.73 | 83.57 | 93.03 | |
| 요인1 | 1.00 | | | | |
| 요인2 | .41 | 1.00 | | | |
| 요인3 | .55 | .37 | 1.00 | | |
| 요인4 | .12 | .26 | .16 | 1.00 | |

의 56.90%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크므로 「긍정적인 가족정서」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

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5.83%를 설명하며,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가족들에게 솔직히 표현한다'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높으므로 「가족 의사소통」이라

고 명명했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0.84%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문항들이 가족의 행사나 오락 등에 대한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요인을 「가족 행사 참여」라고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46%를 설명하며,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모두 가족의 일(거정거리)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가족원들의 태도와 관심 등을 나타내고 있어 「가족 일 나누기」라고 명명하였다.

3. 문항의 설명력 검증

각 요인별로 설명력의 증가분이 적은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적은 수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문항 추가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분이 3% 미만인 문항은 「긍정적인 가족정서」요인에서 2

문항(37, 11), 「가족 행사 참여」요인에서는 3문항(5, 42, 32)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척도를 구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가족정서」요인의 37번 문항과 「가족 행사참여」요인의 5번 문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본 척도는 전반적인 가족기능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족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7번 문항은 '가족원 중의 한 사람이라도 그의 기능을 알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가족정서' 요인의 문항들이 대체로 응답자 개인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에 관하여 알아보는 질문인 반면, 본 문항은 가족 전체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므로 보편적인 가족의 분위기에 관한 좀더 객관적인 응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번 문항은 '우리 가족은 휴일을 함께 보낸다'는 것으로 가족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표 5> 문항추가에 따른 설명력(R²) 증가

| 요 인 | 문항번호 | 문항추가 후의 설명력 | 요 인 | 문항번호 | 문항추가 후의 설명력 |
|---------------|------|-------------|-------------|------|-------------|
| 긍정적인 가족 정서 | 33 | .61 | 가족 행사 참여 | 30 | .44 |
| | 9 | .73 | | 40 | .67 |
| | 4 | .80 | | 29 | .79 |
| | 3 | .85 | | 12 | .87 |
| | 21 | .88 | | 14 | .91 |
| | 7 | .91 | | 39 | .94 |
| | 38 | .94 | | 5 | .96 |
| | 36 | .97 | | *42 | .98 |
| | 37 | .99 | | *32 | 1.00 |
| | *11 | 1.00 | | | |
| 가족 의사소통 | 19 | .57 | 가족 일 나누기 | 13 | .53 |
| | 16 | .81 | | 10 | .78 |
| | 35 | .87 | | 8 | .90 |
| | 24 | .93 | | 34 | 1.00 |
| | 17 | .97 | | | |
| | 28 | 1.00 | | | |

* 표시한 문항은 설명력 증가분이 3%미만이고 척도 구성상 큰 의의를 갖지 않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제외된 문항임(P.14 참조).

기념일 등이 아닌 일반적인 휴일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정도를 물어봄으로써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두 문항은 다른 문항의 내용과 중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 검증을 하였을 때,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5%, 요인별로는 10~20%씩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37번 문항과 5번 문항이 본 척도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항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들 두 문항은 전반적인 가족기능도를 측정·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이며, 척도의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은 남기고 나머지 세 문항(11, 32, 42)만을 척도에서 제외하였다.

4. 가족기능도척도의 신뢰도

최종적으로 추출된 26개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2에서 .62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표 6).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나 .60을 넘고 있으므로 만족할만하다고 볼 수 있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므로 26개 문항으로 재구성된 본 척도는 우리나라 가족들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신뢰할만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5. 기타 변인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

최종적으로 추출된 26개 문항의 가족기능도 척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변인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1)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편의 소득($F=4.00, P<.01$), 남편과 부인의 학력($F=6.61, P<.01; F=2.66, P<.05$), 남편의 직업($F=2.77, P<.05$), 부부의 종교유무($F=3.11, P<.05$)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표 7),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홍성애, 1988; 안양희, 1988; 이문형, 1993; 최규련, 1994; 어은주, 1996)와 일치한다. 남편의 소득이 280만원 이상인 집단의 가족기능도 점수가 소득이 더 적은 집단들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결과는 소득수준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가족기능도가 낮아진다는 Byles 등(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가족기능도 비교에서 '최고관리직'의 사례수가 '2' 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고 관리직의 경우 과중한 사회적 활동으로 가족생활에 충실치 못할 수가 있어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의 일반적 특성 중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편의 소득수준, 부부의 학력, 부부의 종교 유무였으며, 부부의 학력은 결국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으므로, 어은주(1996)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가족의 경제적 측면과 가족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가족기능도척도의 신뢰도 계수

| | 전체 | 하 위 요 인 | | | |
|---------------------|-----|-----------|---------|----------|----------|
| | | 긍정적인 가족정서 | 가족 의사소통 | 가족 행사 참여 | 가족 일 나누기 |
| Cronbach's α | .86 | .82 | .80 | .73 | .62 |

〈표 7〉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도

| 변 인 | 범 주 | 사례수 | 가족기능도 | | F 값 | Scheffé |
|--------------------------|-----------------|-----|--------|-------|---------------|---------|
| | | | 평균 | 표준편차 | | |
| 남편의 소득 (N=346) | 110 미만 | 54 | 119.13 | 20.24 | 4.00** | C |
| | 110이상-170미만 | 92 | 123.41 | 19.53 | | BC |
| | 170이상-230미만 | 93 | 129.29 | 20.35 | | AB |
| | 230이상-280미만 | 47 | 131.23 | 19.38 | | A |
| | 280 이상 | 60 | 129.12 | 16.46 | | B |
| 부인의 소득 (N=358) | 없음 | 213 | 126.96 | 20.13 | 0.31(n.s) | |
| | 110 미만 | 32 | 126.63 | 16.77 | | |
| | 110이상-170미만 | 44 | 124.30 | 21.62 | | |
| | 170이상-230미만 | 54 | 124.15 | 20.09 | | |
| | 230이상-280미만 | 10 | 124.50 | 17.87 | | |
| | 280 이상 | 5 | 122.20 | 13.64 | | |
| 가족의 주관적 계층 (N=358) | 上 | 14 | 127.43 | 16.32 | 2.32(n.s) | |
| | 中上 | 154 | 128.79 | 20.41 | | |
| | 中下 | 151 | 125.85 | 18.86 | | |
| | 下 | 39 | 119.67 | 20.90 | | |
| 남편의 학력 (N=355) | 중졸이하 | 62 | 118.47 | 21.31 | 6.61** | B |
| | 고졸 | 159 | 127.19 | 19.76 | | A |
| | 초대졸 이상 | 134 | 129.25 | 18.62 | | A |
| 부인의 학력 (N=361) | 중졸이하 | 93 | 122.49 | 2.008 | 2.66* | B |
| | 고졸 | 197 | 127.15 | 19.77 | | AB |
| | 초대졸 이상 | 71 | 129.21 | 18.11 | | A |
| 남편의 직업 (n=341) | 노무직 | 197 | 124.69 | 21.00 | 2.77* | A |
| | 사무직 | 118 | 128.70 | 18.40 | | A |
| | 전문직 | 24 | 130.25 | 17.79 | | A |
| | 최고관리직 | 2 | 90.00 | 16.97 | | B |
| 부인의 직업 (n=364) | 무직 | 218 | 126.88 | 20.16 | 0.98 (n.s) | |
| | 노무직 | 107 | 125.15 | 19.64 | | |
| | 사무직 | 21 | 121.19 | 21.03 | | |
| | 전문직 | 18 | 131.00 | 15.22 | | |
| 부부의 종교유무 | 부부 모두 종교가 있음 | 187 | 128.79 | 18.87 | 3.11* | A |
| | 한 쪽만 종교가 있음 | 67 | 123.03 | 19.99 | | B |
| | 부부 모두 종교가 없음 | 106 | 124.00 | 21.17 | | B |
| 가족형태 I (N=370) | 핵가족 | 293 | 125.43 | 19.78 | 2.27(n.s) | |
| | 확대가족 | 77 | 129.25 | 19.71 | | |
| 가족형태 II (N=369) | 편부모가족 | 25 | 126.38 | 19.35 | 0.21(n.s) | |
| | 일반가족 | 344 | 124.48 | 25.88 | | |

n.s=not significant

**P < .01

*P < .05

* 가족기능도 점수의 최대값은 182점이고 최소값은 26점이다.

2)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도

전체적인 가족기능도와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계수는 0.34이며,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결혼만족도는 가족기능도와 의미있는 정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Casas, 1984; Stinnett & DeFrain, 1985; Lavee & Olson, 1991; 김윤희, 1989; 김인숙, 1993; 최규련,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긍정적인 가족정서」요인과 「가족 행사 참여」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r = .48, P < .001; r = .36, P < .001$) 결혼만족도가 높고 낮은 것은 가족의 기능성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족의 긍정적인 정서 및 가족 행사 참여에 대한 태도 등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의 기능성, 특히 가족간의 긍정적인 정서, 정서적 기능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본다.

부인의 자아존중감도 전체적인 가족기능도와 .38의 유의한($P < .001$)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Cohen & Will, 1985; Goldstein & Rosenbaum, 1985; Farrell & Barnes, 1993; 최규련, 1995)와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가족정서」요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높게($r = .48, P < .001$) 나타났고, 「가족의사소통」요인과 「가족 행사 참여」요인도 자아존중감과 의미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r = .25, P < .001; r = .29, P < .001$). 즉, 부인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은 것은 가족의 긍정적인 정서와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 행사참여에 대한 태도와 깊은 정적 관계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가족정서와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 참여 등에 따라 개인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나 치료학자들이 지적한대로 가족간의 긍정적 정서가 개인의 자아발달 및 정체감 형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Tavitian 등이 제작한 FFS를 우리나라 가족들에게 적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가족들의 전반적인 가족기능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족기능도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가족상담과 치료 등에서 하나의 가족에 대하여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가족기능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척도를 규준자료로 하여, 여러 배경 변인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Tavitian 등이 개발한 FFS(Family Functioning Scale)로, 5개 요인구조의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7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2문항을 더 추가하였으며, 서울·경기지역의 교육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χ^2 과 Cramer's V계수를 통한 문항양호도 분석,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신뢰도 계수, F검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부인의 결혼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도와의 상관관계

| | 전체적인 가족기능도 | 가족기능도 하위변인 | | | |
|--------------|---------------|---------------|------------|-------------|-------------|
| | | 긍정적인 가족 정서 | 가족 의사소통 | 가족 행사 참여 | 가족 일 나누기 |
| 결혼만족도(N=362) | 0.34*** | 0.48*** | 0.13** | 0.36*** | -0.02 |
| 자아존중감(N=370) | 0.38*** | 0.45*** | 0.25*** | 0.29*** | -0.04 |

***P < .001 **P < .01

첫째, FFS의 문항양호도 검증 결과, 34개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4개 문항에 대하여 사각회전을 통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요인에 분명하게 포함되는 29개 문항과 전체 변량의 93.03%를 설명하는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들은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 의사소통」, 「가족 행사 참여」, 「가족 일 나누기」로 명명되었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가족정서」요인에서 한 문항, 「가족 행사 참여」요인에서 두 문항이 각 요인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되었다. 넷째, 26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만족스럽게 나왔으며, 따라서 본 척도가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족기능도 척도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본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의 일반적 특성,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가족의 경제적인 측면과 종교 등의 가치관이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모두 가족기능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이상의 결과로부터 Tavitian 등의 FFS를 우리나라 가족들에게 적용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하여 26개 문항으로 재구성 한 본 척도는 우리나라 가족들의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는 척도이며, 특히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상담 및 교육 등에서 대상 가족의 전반적인 가족기능도를 진단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척도는 주로 가족의 상

| 하위요인 | 문 항 |
|-----------|---|
| 긍정적인 가족정서 | 1. 우리 가족은 가족원의 누구라도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가족원이 그것을 알도록 한다. 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 3. 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4. 내가 얘기할 때는 가족들이 잘 들어준다(경청한다). 5. 우리 가족은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6.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 7. 가족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8. 가족원 중의 한 사람이라도 그의 기분을 알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9. 나는 우리 집에서 낯선 사람(손님)처럼 소외감을 느낀다. |
| 가족 의사소통 | 10. 대인관계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점이 있으면 나는 가족과 솔직하게 얘기한다. 11. 나는 내가 슬플 때는 가족들이 알도록 이야기 한다. 12.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가족들에게 솔직히 표현한다. 13. 우리 가족은 성(性)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얘기한다. 14. 나는 가족들 때문에 화가 나면 그것을 가족에게 얘기한다. 15. 나는 내가 걱정될 때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린다. |
| 가족행사 참여 | 16. 우리 가족은 휴일을 함께 보낸다. 17. 우리 가족은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18. 우리 가족은 기념일과 졸업식 같은 특별한 일들을 축하한다. 19. 우리 가족은 하루에 적어도 한 끼는 함께 식사한다. 20. 가족의 친목도모(가족오락)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다. 21. 우리 가족은 친척이나 친구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낸다. 22. 우리 가족은 자신의 문제를 나와 의논한다. |
| 가족 일 나누기 | 23. 가족 중 누군가가 화가 나면, 나는 걱정이 된다. 24. 나는 식구들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걱정이 된다. 25. 가족 안에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몸이 아파지는 것 같다. 26. 가족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식욕이 떨어진다. |

호작용 및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대처능력을 알아보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다른 척도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족과 정상가족간의 가족기능도 비교를 못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본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가족과 정상 가족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척도의 실용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재, 가족원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측정·진단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가족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계획적인 표집에 의하여 편부모 가족과 일반가족의 표집수가 비슷한 상태에서 가족기능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알아본 것들 외에도 많이 있고,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변인을 다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변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기능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하여 기능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연지(1994).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여중생의 불안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민(1992). 장기 장애인 가족과 일반 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5).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1990).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이상희·이근미·김수영·정승필(1993). 가족기능도 지수와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 척도로 분류한 가족군 사이의 결혼만족도 차이. 가정의학회지 14(12), 797-803.
- 김주연(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Circumplex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자녀 교육이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육선화(1995). "가족의 위기와 전망". 한국가족문제-진단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편. 하우.
-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1994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유영주·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이문행(1993).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2(2), 140-152.
- _____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4.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5.
-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119.
- 홍성애(1988).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mann, J. S. & Glock, M. D.(1967). *Evaluation*

- Pupil Growth : principles of tests and measur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Beavers, W. R. & Voller, M. N.(1983). Family models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Beavers, W. 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York : Brunner / Mazel, Inc.
- Belkin, G. S. & Nass, S.(1984). *Psychology of adjustment : The fully functioning family.* Boston : Allyn & Bacon, Inc.
- Bloom, B. L.(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 Byles, J., Byrne, C., Boyle, M. H. & Offord, D. R. (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 97-104
- Casas, C., Stinnett, N., DeFrain, J., William, R. & Lee, P.(1984). Latin American family functioning. *Family Perspectives* 18, 11-17.
- Cohen, S. & Will,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oherty, W. J., & Colangelo, N.(1984). The family of FIRO model :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9-20.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19-132.
- Fisher, B. L. & Sprenkle, D. H.(1978). Therapists' perception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t. Journal of Family Counseling* 29.
- Grunebaum, H., & Chasin, R.(1982). Thinking like a family therapist : A model for integrating the theories and methods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403-416.
- Hennon, C. B.(1985). Building emotionally healthy families. *Univ. of Wisconsin Cooperative Extension Bulletins.*
- Lavee, Y. & Olson, D. 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V. 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York : Brunner / Mazel, Inc.
-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8, 3-28.
- Pinsoff, W. M.(1983). Integrative problem-centered therapy toward the synthesis of family and individual psychotherap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9-36.
- Sigafoos, A., Reiss, D., Rich, J., Douglas, E.(1985). Pragmatics in the Measurement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189-210.
- Stinnett, N. & Sauer, K. H.(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 Tavitian, M. L., Lubiner, J., Green, L., Grebstein, L. C., & Velicer, W. F.(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